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9.(화) / (총 18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전 은 정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78명(해외유입 1,181명*(내국인 89.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4명으로 총 9,938명(89.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77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5. 18.(월) 0시 기준	753,211	11,065	9,904	898	263	16,093	726,053
5. 19.(화) 0시 기준	765,574	11,078	9,938	877	263	16,925	737,571
변동	(+)12,363	(+)13	(+)34	(-)21	0	(+)832	(+)11,518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877	151	11	300	39	0	4	7	1	107	7	16	4	1	5	53	6	3	162
격리해제	9,938	587	130	6,389	87	30	39	41	46	602	46	43	140	19	13	1,261	115	11	339
사망	263	4	3	182	0	0	1	1	0	16	2	0	0	0	0	54	0	0	0
합계	11,078	742	144	6,871	126	30	44	49	47	725	55	59	144	20	18	1,368	121	14	501
신규	13	6	0	0	2	0	0	4	0	1	0	0	0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4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지역발생(잠정)	9	6	0	0	2	0	0	0	0	1	0	0	0	0	0	0	0	0	0

* 5월 18일 0시부터 5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명 중 해외유입은 4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9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4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19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	0	0	0	4	0	0	0	4	4	0
누계	1,181	19 (1.6%)	178 (15.1%)	468 (39.6%)	507 (42.9%)	8 (0.7%)	1 (0.1%)	501 (42.4%)	680 (57.6%)	1,054 (89.2%)	127 (10.8%)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9명(5.19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클럽 집단 발생 관련 7명, 서울 지역 사례 1명, 확진자 접촉 1명이다.

- 서울 지역 사례 1명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으로 접촉자에 대한 검사 중 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접촉자와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클럽 관련 7명은 클럽 방문자 2명,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이며, 5.19일 12시 까지 추가로 12명이 확인되어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는 187명*이다.

* (지역별) 서울 97, 경기 37, 인천 33, 충북 9, 부산 4, 전북 2, 대전 1, 충남 1, 경남 1, 강원 1, 제주 1 (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 클럽 방문 9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94명
(연령별) 18세 이하 20명, 19~29세 111명, 30대 27명, 40대 13명, 50대 7명, 60세 이상 9명
(성별) 남자 150명, 여자 3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탐코인 노래방, 11층 진PC방, 엘리베이터를 5월 6일 15~24시 사이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증상 발생 시 즉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방안을 안내하였다.
- 교육기관-보건소 핫라인 구성, 시·도/시·군 교육청, 시·도 보건과 역학조사 대응팀 사전 구성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이 되도록 하였다.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 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확진자 발생시에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조치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이용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또한,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기관에 고등학생 검체에 대한 최우선 검사와 신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5월 5일 0시부터 5월 19일 0시까지 신고된 274명) : 해외유입 79명(28.8%), 지역집단발병 174명(63.5%), 조사중 16명(5.8%) 등
- 부득이하게 밀폐·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클럽·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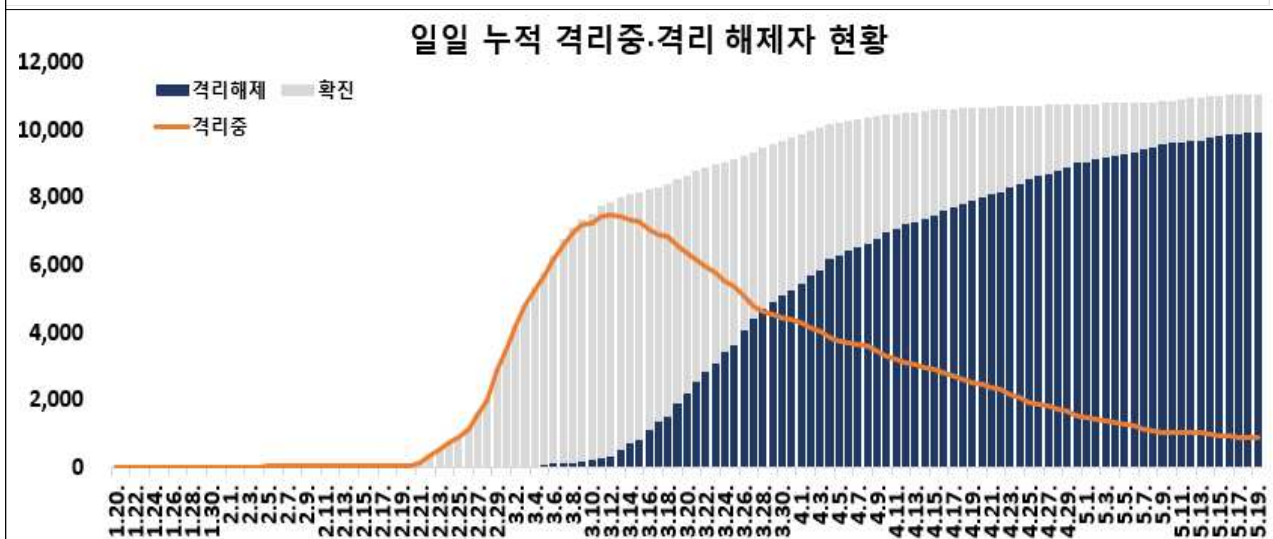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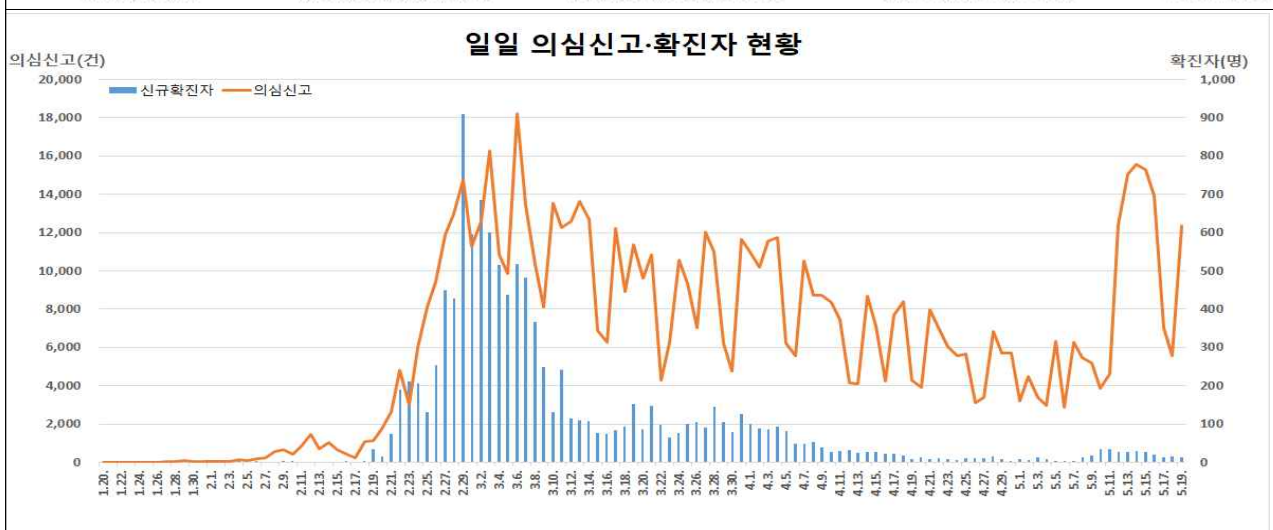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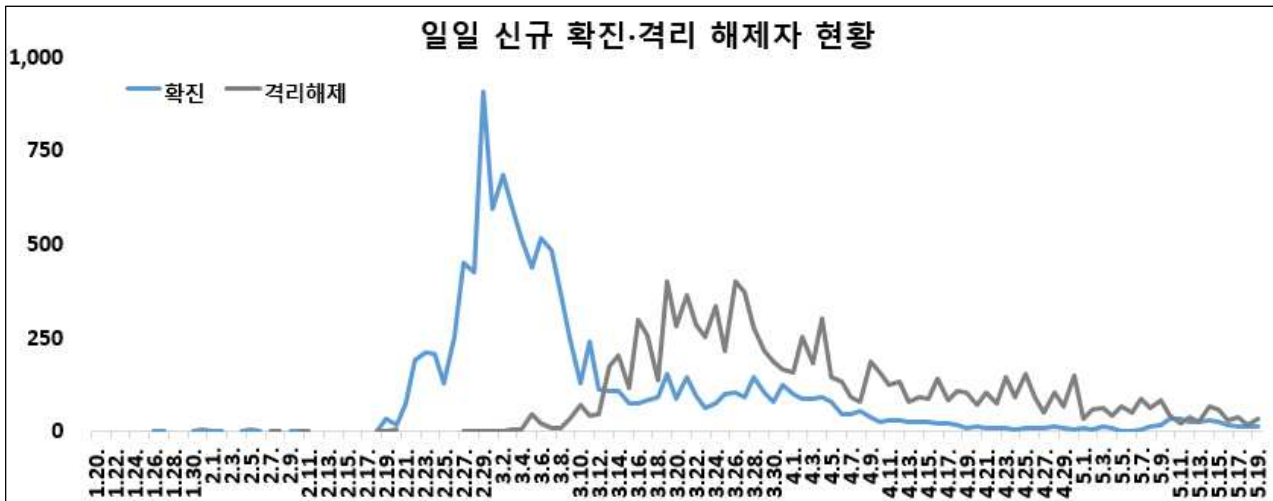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10.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5.19. 0시 기준, 11,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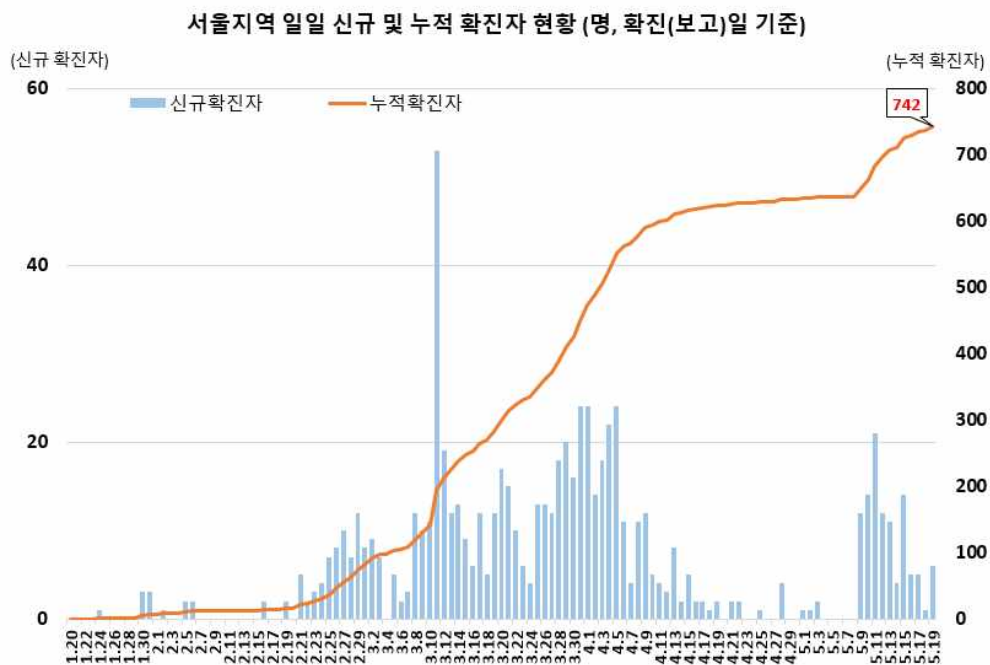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5.19. 0시 기준, 11,078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742	(6.70)	7.62	경기	725	(6.54)	5.47
부산	144	(1.30)	4.22	강원	55	(0.50)	3.57
대구	6,871	(62.02)	282.00	충북	59	(0.53)	3.69
인천	126	(1.14)	4.26	충남	144	(1.30)	6.78
광주	30	(0.27)	2.06	전북	20	(0.18)	1.10
대전	44	(0.40)	2.98	전남	18	(0.16)	0.97
울산	49	(0.44)	4.27	경북	1,368	(12.35)	51.38
세종	47	(0.42)	13.73	경남	121	(1.09)	3.60
검역	501	(4.52)	-	제주	14	(0.13)	2.09
총합계					11,078	(100)	2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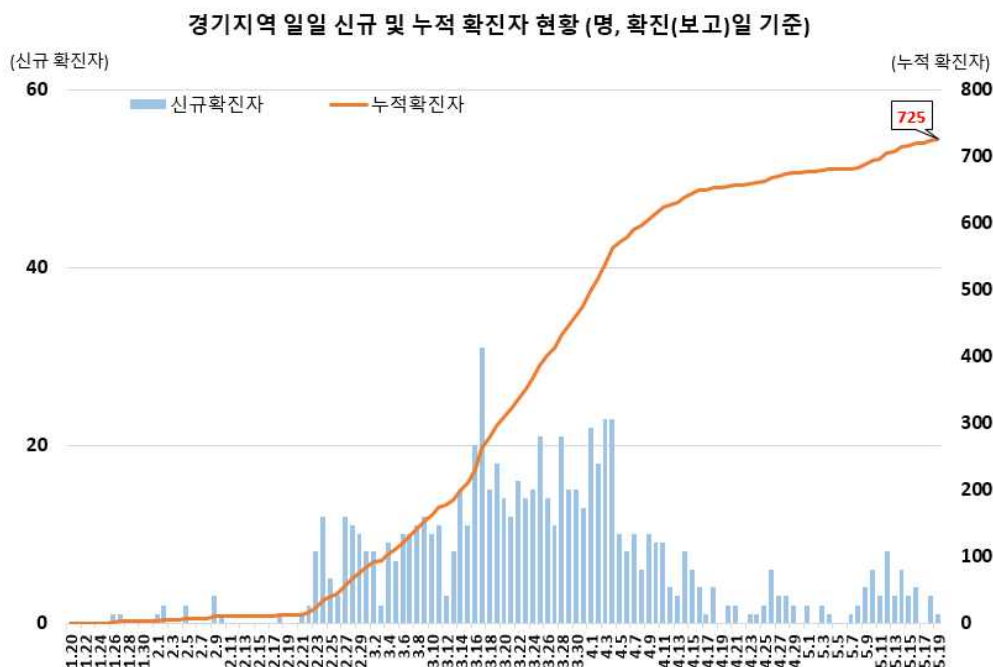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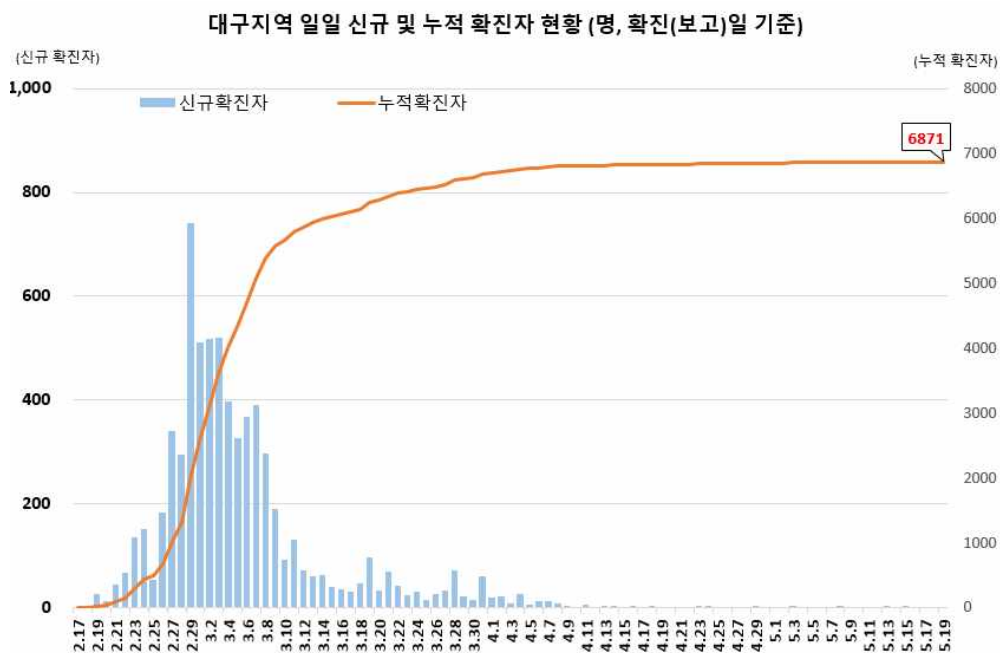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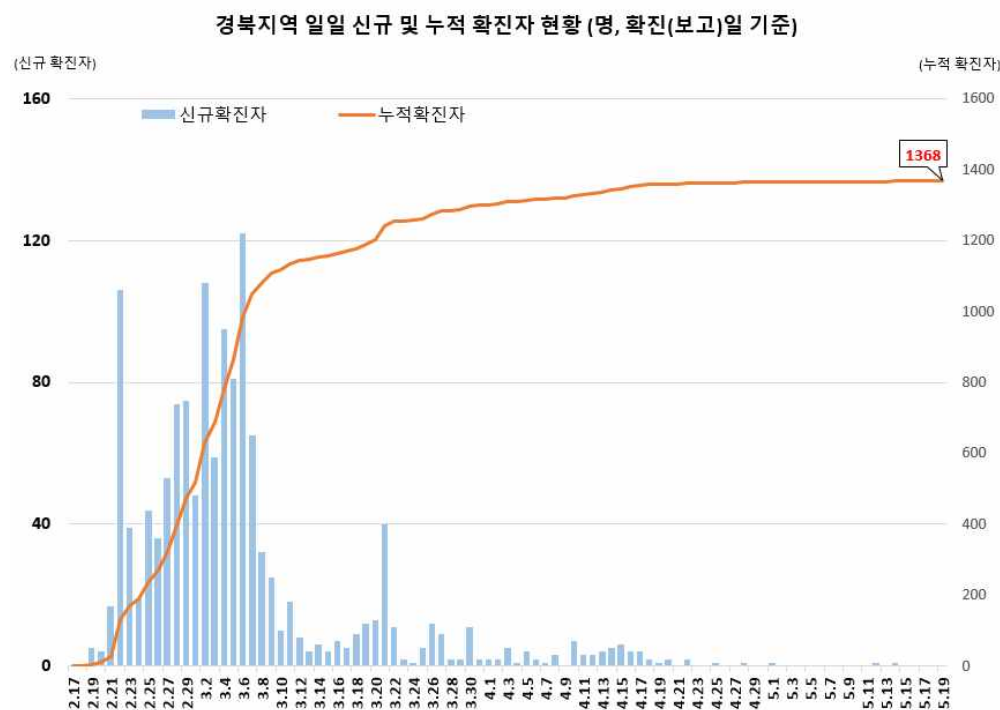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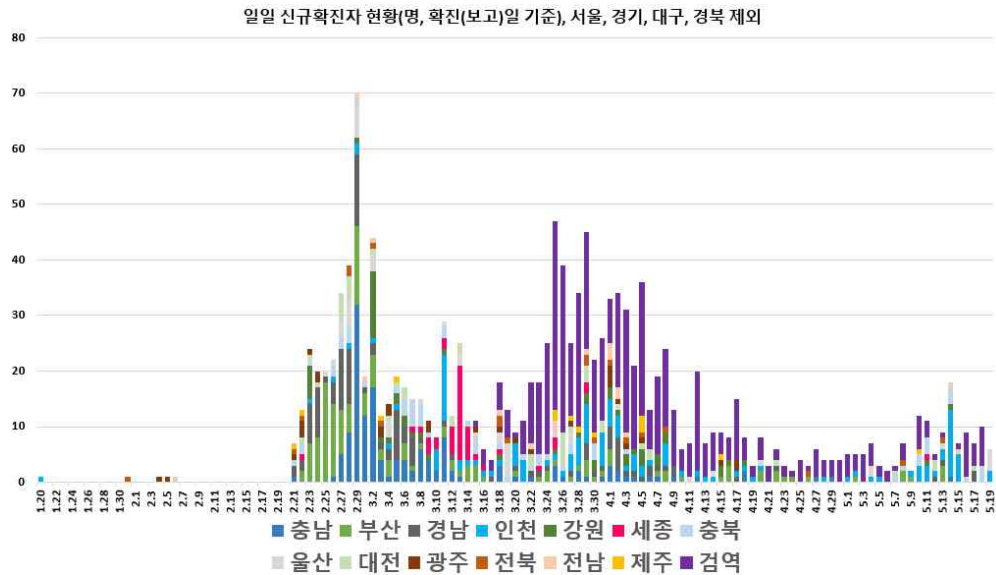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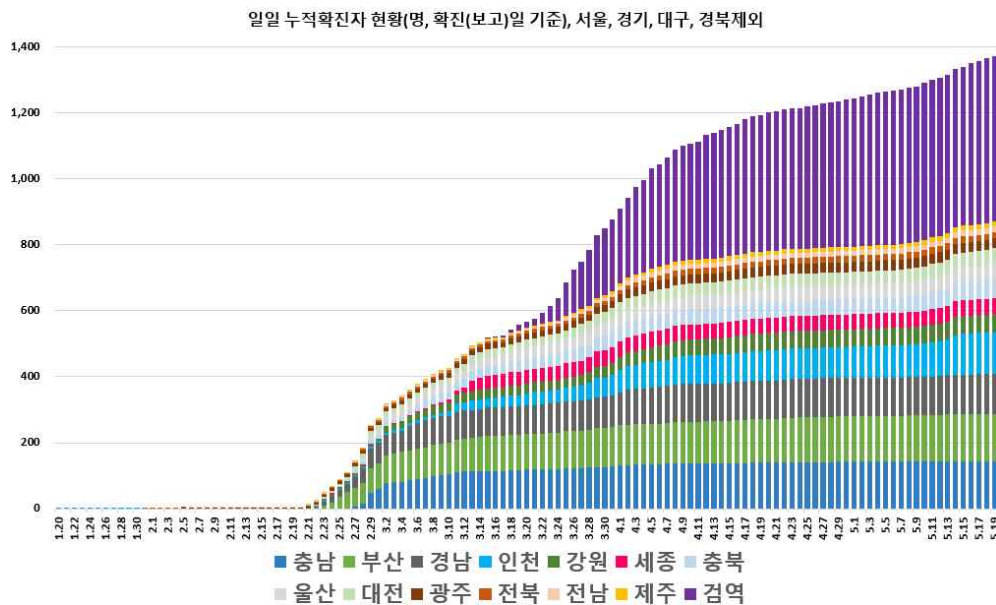


<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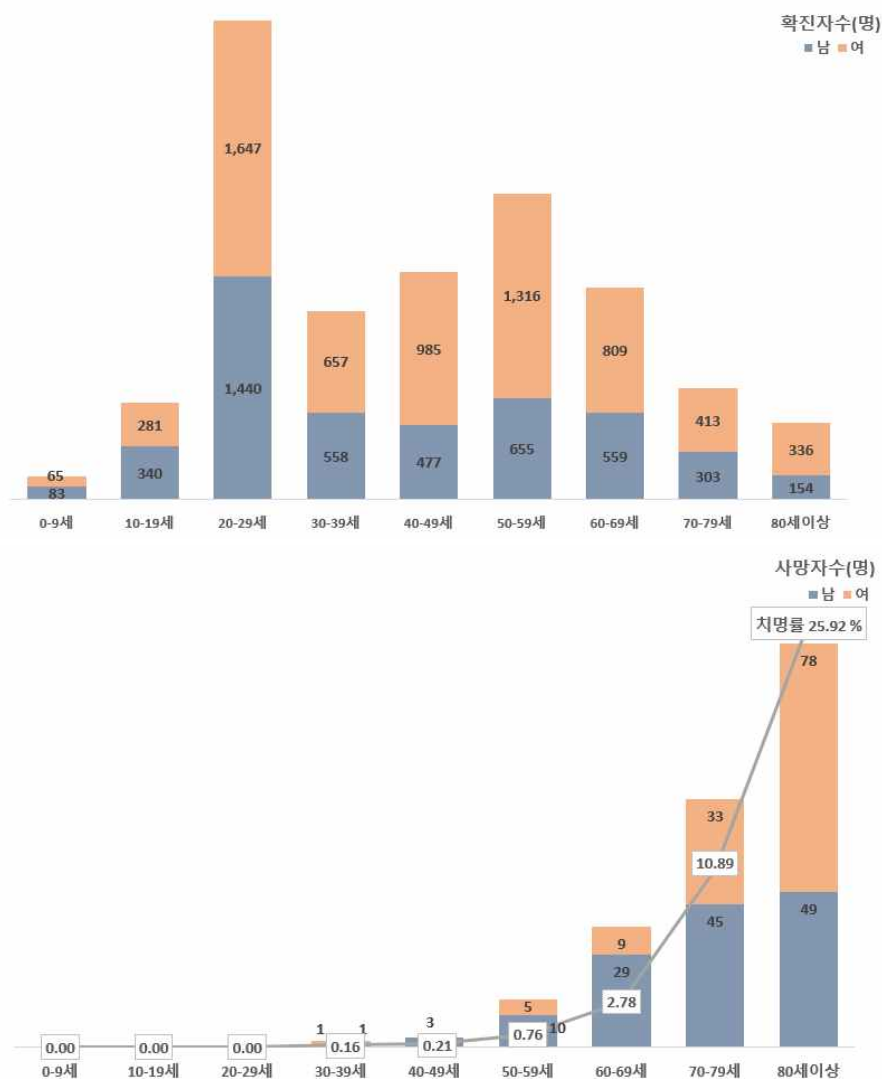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3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5.19. 0시 기준, 11,078명)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1,078 (100)	263 (100)	2.37
성별	남성	4,569 (41.24)	137 (52.09)	3.00
	여성	6,509 (58.76)	126 (47.91)	1.94
연령	80세 이상	490 (4.42)	127 (48.29)	25.92
	70-79	716 (6.46)	78 (29.66)	10.89
	60-69	1,368 (12.35)	38 (14.45)	2.78
	50-59	1,971 (17.79)	15 (5.70)	0.76
	40-49	1,462 (13.20)	3 (1.14)	0.21
	30-39	1,215 (10.97)	2 (0.76)	0.16
	20-29	3,087 (27.87)	0 (0.00)	-
	10-19	621 (5.61)	0 (0.00)	-
	0-9	148 (1.34)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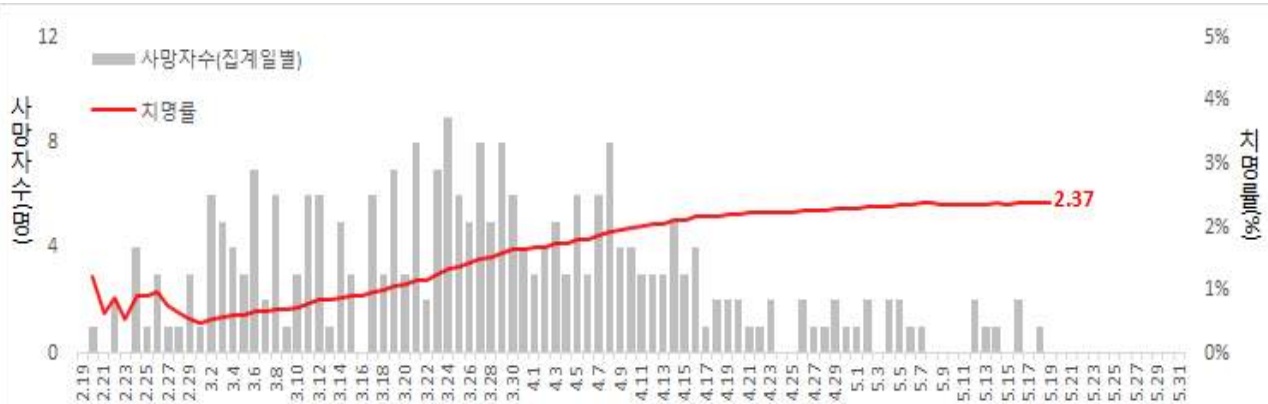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10만명당 발생율 >



< 연령별 위증·중증환자 현황 >

구분	계	중증 (%)	위증 (%)
계	15	5 (100.0)	10 (100.0)
80세 이상	6	2 (40.0)	4 (40.0)
70-79세	4	1 (20.0)	3 (30.0)
60-69세	2	1 (20.0)	1 (10.0)
50-59세	1	1 (20.0)	0 (0.0)
40-49세	2	0 (0.0)	2 (20.0)
30-39세	0	0 (0.0)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 일별 사망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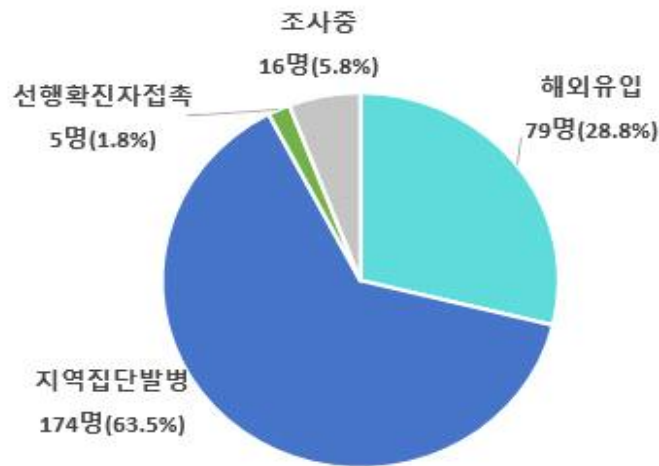
4 감염경로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742	262	455	8	361	17	69	25	6	이태원클럽 관련(9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등
부산	144	27	88	12	57	18	1	29	0	이태원클럽 관련(4명),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871	25	6,115	4,510	678	923	4	731	0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등
인천	126	47	74	2	59	6	7	5	2	이태원클럽 관련(25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30	14	16	9	0	1	6	0	0	
대전	44	13	22	2	12	8	0	9	0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49	18	24	16	2	3	3	7	4	
세종	47	4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725	176	503	29	360	52	62	46	1	이태원클럽 관련(34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 등
강원	55	15	33	17	16	0	0	7	0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등
충북	59	8	42	6	27	7	2	9	0	이태원클럽 관련(9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등
충남	144	13	121	0	119	1	1	10	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등
전북	20	10	5	1	4	0	0	5	0	
전남	18	10	5	1	1	2	1	3	0	
경북	1,368	13	1,224	566	468	190	0	131	0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41명) 등
경남	121	17	86	32	47	6	1	18	0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웅스타워 관련(10명) 등
제주	14	8	2	0	1	0	1	4	0	
검역	501	501	0	0	0	0	0	0	0	
합계	11,078 (%)	1,181 (10.7)	8,857 (80.0)	5,212 (47.0)	2,250 (20.3)	1,237 (11.2)	158 (1.4)	1,040 (9.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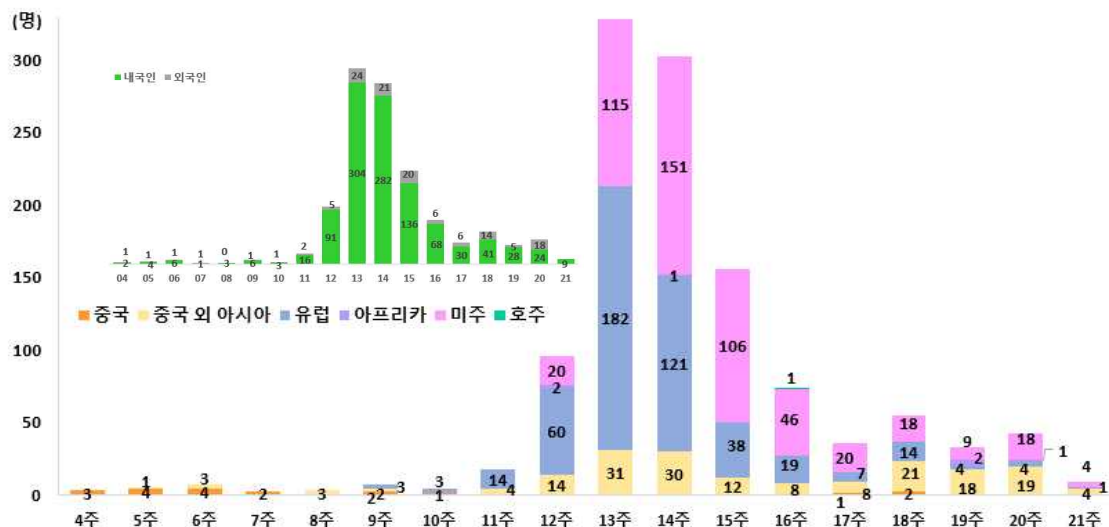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최근 2주간 (5.5일 0시~5.19일 0시까지 신고된 274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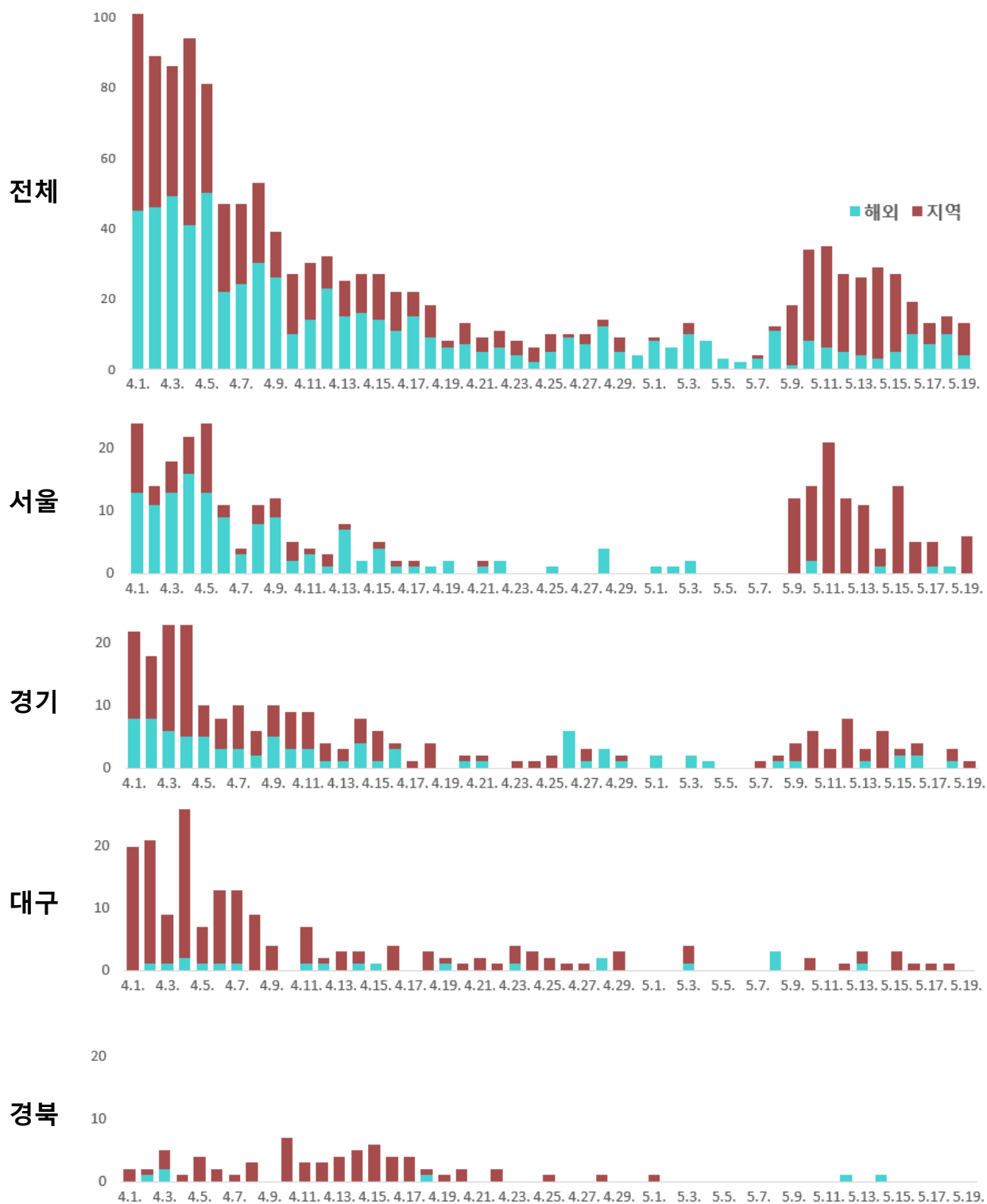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19	-
중국외아시아	178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등
유럽	468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	8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주	507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호주	1	호주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미국	1,506,840	20,464	90,309	759	6.0	457.9
러시아	290,678	8,926	2,722	91	0.9	202.0
브라질	254,220	13,140	16,792	674	6.6	119.7
영국	246,406	2,711	34,796	160	14.1	367.8
스페인	231,606	256	27,709	59	12.0	499.2
이탈리아	225,886	451	32,007	99	14.2	381.6
독일	176,551	182	8,003	41	4.5	214.3
터키	150,593	1,158	4,171	31	2.8	181.4
프랑스	142,903	492	28,239	131	19.8	218.2
이란	122,492	2,294	7,057	69	5.8	147.9
인도	96,169	5,242	3,029	157	3.1	7.0
페루	94,933	2,660	2,789	141	2.9	288.6
중국	82,960	6	4,634	0	5.6	5.8
캐나다	78,072	1,070	5,842	60	7.5	209.3
싱가포르	28,343	305	22	0	0.1	480.4
일본	16,365	60	763	14	4.7	12.9
인도네시아	17,514	489	1,148	59	6.6	6.5
필리핀	12,513	208	824	7	6.6	11.6
태국	3,031	3	56	0	1.8	4.4
베트남	320	2	0	0	0.0	0.3
대한민국	11,078	13	263	0	2.4	21.4**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